

대림산업 이용구 대표, 한국-이란 경제협력위원장



대림산업 이용구 대표이사(사진)가 5월17일 한국-이란 경제협력위원회 한국측 위원장에 위촉됐다.

한국-이란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1989년 창립총회를 갖은 이래 서울과 테헤란을 교대로 합동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, 대한상공회의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다.

2005년에는 제7차 한국-이란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5월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
신임 이용구 위원장은 2005년 한국-이란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위촉 이전에 2003년 한국-이란 민간친선협회 초대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양국간의 민간차원의 우호증진에 노력한 바 있다.

대림산업은 1977년 이란에 처음 진출한 이래 정유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각종 대규모 플랜트 및 토목공사 프로젝트 20건 이상(총 40억달러)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이란 내 대표적인 한국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05/17>